부활 제3주일 강론(2019년 5월 5일)

김도윤 프란치스코 신부

봄비가 시원하게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가 내리고 나면 세상에 생명력이 가득해질 것입니다. 저는 일주일에 두 세 번씩 동네 공원에 가서 3마일 정도를 걷습니다. 걸으면서 기도도 하고 이런 저런 생각도 하고, 사람들도 쳐다보고, 주변 풍경도 보고 그럽니다. 그렇게 조용히 혼자 걸으면서, 주변을 둘러보면, 하느님께서 만드신 세상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모릅니다.

특히 요즘은 온 세상에 생명력이 가득합니다. 새로 돋은 푸른 잎이 더 싱그럽게 자라나고 있고, 이름모를 꽃들이 여기 저기 활짝 피고 있습니다. 세상 모든 것이 하느님의 섭리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새삼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은 죽음에서 엄청난 생명력을 한 몸에 받으면서 다시 살아 나셨습니다. 온 세상 자연 만물을 태어나게 하고 자라나게 하는 그 신비스럽고 엄청나게 강한 생명력이 잠들었던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예수님을 부활시킨 그 엄청나게 강한 생명력이 지금 이 순간 이 자리에서 우리 모두에게도 실제로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우리 모두도 신앙의 힘으로 하느님의 강한 생명력을 갖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사실은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 사건을 경험한 이후, 세상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그 부활 사건을 처음 경험하고 세상에 외친 초대 사도들 뿐 아니라, 그 부활 사건을 전해 듣고 믿게 된 사람들의 인생도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이제는 죽음이 기다리는 허무한 인생이 아니라, 엄청난 생명력과 희망을 안고 살아가는 인생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로 많은 사람들이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부활의 이런 엄청난 희망과 생명력이 여러분들의 삶 안에도 가득하신가요? 도대체 예수님이 부활 하셨다는 사실이 과연 나와 내 인생에 어떤 상관이 있는 걸까요?

내 자신이 예수님과 함께 부활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부활 사건은 그냥 남의 이야기가 되고 맙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처럼 나도 이제 새롭게 부활해야 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거죠.

오늘 복음은 정말 아름다운 장면입니다. 두고 두고 잊을 수 없는 감동적인 장면이죠. “너 나를 사랑하느냐?”하는 예수님의 질문과 “네, 주님을 정말로 사랑합니다”라는 베드로의 고백…

이것은 예수님의 두 번째 부르심이었습니다. 베드로를 처음 부르시던 장면과 비슷합니다. 첫 부르심에서도 고기 잡이 가서, 밤새 한 마리도 못잡고 그냥 돌아오던 길이었죠. 밤새 헛탕쳐서 지치고 실망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말씀하십니다. “더 깊은 데로 가서 다시 그물을 던져 보아라.” 그랬더니, 엄청난 고기가 잡혔죠.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를 따라 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 주겠다.”

오늘 두 번째 부르심은 첫번째 부르심을 다시 기억하게 해줍니다. 몇 년 동안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녔었죠. 정말 놀라운 가르침과 기적들을 행하시는 스승 예수를 따라다니면서, 스승님은 아마도 세상을 바꿀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을 어렴풋이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 믿었던 스승님이 아주 처참하게 죽었습니다. 모든 것이 비극으로 끝나고 말았습니다. 이제 희망도 사라졌고, 몸도 마음도 다 치쳤고, 인생이 그저 실망만 남았습니다.

그후에, 그냥 고향으로 돌아와서, 옛날의 일상적인 삶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별 희망도 없이 고기잡이나 하면서 살아가자고 마음 먹고, 그날도 그렇게 배를 탔습니다. 역시나 밤새 헛탕치고, 지치고, 실망한 그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시 다가가십니다. 그리고는 삶의 새로운 희망을 싹트게 해주십니다.

그 분이 살아 돌아온 스승님이었습니다. 세상에 어찌 이런 일이! 죽었다고 믿었고, 이제 다 끝났다고 믿었었는데… 그 분이 그렇게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베드로는 아무 말도 못합니다. 자기가 한 죄가 있으니까… 그렇게 용감하게 큰 소리 뻥뻥 쳤었는데, 스승님 말대로 세번이나 스승님을 부인하고 도망가 버린 자신이 용서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아무말 못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묻습니다. 아주 부드럽고 따뜻한 목소리로, “베드로야, 너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묻습니다.

보통 우리 같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멱살 잡고, 소리 소리 지르면서, “네가 나를 배신해? 내가 널 가만 둘 줄 알아?” 이러는게 아니라… 차라리 그렇게 혼이라도 냈으면 하고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 베드로에게, 너무도 따뜻하고 차분하고 사랑스런 목소리로, “너 나를 사랑하느냐?”하고 묻습니다. 모든 것을 다 용서해줄 것 같은 다정한 목소리로 그렇게 묻는 겁니다. 세 번을 물으시죠. 베드로가 세 번을 주님을 모른다고 부정한 것에 대해서, 똑같이 세 번을 반복해서 “사랑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이 순간, 베드로의 인생이 바뀝니다. 가장 겸손하고 낮은 자세로, 주님께 사랑을 고백하는 이 순간 베드로의 인생이 바뀌고, 세상이 바뀝니다. 주님의 첫 번째 부르심으로 사도가 되는 길에 들어섰다면, 이 두 번째 부르심으로 이제 베드로는 세상을 향해 처음으로 진짜 자신의 사명을 수행하는 참된 사도가 되는 겁니다.

갈릴래아 호숫가의 이 아름다운 장면에는 아주 중요한 두 가지 요소가 있습니다.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누는 식사, 그리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직접 명하시는 사명. 내 양들을 돌보라는 사명이었죠. 그날, 그 갈릴래아 호숫가에서의 아침 식사는 베드로로 하여금, 주님과 다시 만나고 새롭게 사랑을 고백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새롭게 사명을 받게 되는 순간이 됩니다.

지금 우리가 여기서 하고 있는 미사도 똑같은 의미를 갖습니다. 성찬의 전례를 통해서 주님과 다시 만나고 새롭게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순간이고, 그리고 이 순간 주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사명을 주십니다.

그 옛날, 부활하신 예수님이 갈릴래아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하시는 그 똑같은 질문을 지금 이 순간 이 미사 중에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똑같이 물으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 그리고 우리의 대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너 나를 사랑하느냐?”는 주님의 물음에, 여러분들은 어떤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네, 주님, 당신을 사랑합니다!”하고 고백하는 순간, 우리에게도 베드로에게 주신 것처럼, 새로운 사명이 주어질 것입니다. “그 사랑을 실천하거라!”

주님의 부활은 우리에게 새로운 삶의 시작이 될 것이고, 그것은 영원한 사랑의 약속과 희망이 가득한 순간이 될 것입니다!